



박희권

(주)하림 상무 · 편집위원장

예측 가능한 육계산업을 기대하면서...

어느 유명 외국회사 대표이사의 신년사 중에 '어제(yesterday)는 역사(history)이고, 내일(tomorrow)은 신비(mystery), 오늘(today)은 선물(present)이어서, 언제나 내일보다 선물로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다.

현재의 육계산업을 보면서 우리는 최근 20년 동안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해야만 한다. 그분들의 땀이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했으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이 남아 있다. 1년 후 아니, 6개월 후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육계산업의 낙후성이 그 중에 하나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는 2006년도의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종계 입식수수 과잉에 따른 육계 생산량이 수요량을 최대 20% 이상까지 초과되어 생계시세가 생산비 미만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지난 2002년, 2003년과 유사한 장기적인 불황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수 많은 시나리오와 대책을 수립하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금년 1/4분기는 예측했던 것처럼 생계시세가 폭락하지 않고, kg당 평균 1,430원대를 형성하여 큰 사고 없이 넘어갔다. 하지만 이렇게 시세가 좋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종계의 생산성 저하, 여러 가지 소모성 질병 발생, 육계 생산성 저하 등 매년 동절기마다 반복되는 생산성 저하가 생산비용을 높여서 시세는 좋았지만, 실제 경제적으로는 대부분의 계열업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와중에 일부에서는 생산 과잉을 우려하여 종계를 조기 도태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환우를 시켰으나, 그 숫자와 규모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어 향후 우리 산업의 생산량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 예측은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된단 말인가? 우리 업계 관계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육계산업이 좀더 건강한 산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통계의 투명성과 원칙 준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브로일러협회(U.S Broiler Council)에 아그리스테츠(Agri stats, Inc.)라는 기관이 있어서 그 곳에서 미국내 육계와 종계, 사료 등 관련 데이터가 주간, 월간 단위로 업체별로 보고를 받고, 이를 기초로 하여 주간 종계 사육수수가 공표되어 모든 육계산업 관련자가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관에서 요약하여 통보된 수치를 보고 각 계열회사들은 자사의 성적과 수준을 평가하고, 사업 계획과 경기를 감안하여 입추수수를 조절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대처로 미국의 육계산업의 호황과 불황의 주기와 편차는 그리 크지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언제까지 미국을 부러워하면서 우리 산업의 통계자료의 부정확성만을 탓하고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도 계육협회를 중심으로 원종계 입추와 사육 중인 수수, 종계와 육계의 주령별, 농가별 사육중인 수수, 부화장별 병아리 배부수수 등 산업관련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보고돼, 농림부에서 종합하여 발표되는 자료의 투명성을 높여서 산업 예측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회사, 우리 농가의 자료만 정확하게 보고해 주면 된다. 남의 탓하지 말고.

통계자료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수 없이 회자된 주제이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일이 많은 분야이다.

전에는 산업규모가 적고, 계열화 등 산업 전반이 덜 성숙되어 힘들었지만, 이제는 육계산업이 성숙된 산업으로 자리매김 했고, 미국과 태국 등과 FTA 등을 체결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생존 가능한 사업이 되었다. 우리의 경쟁력은 우리가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 육계산업은 서로가 윈-윈(Win-Win)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보 공유를 통해 사전에 준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업계 발전을 통해 얻어진 과실은 반드시 우리산업 발전을 위해 재투자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해 업체간 상호보완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여 우리산업이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도록 해보자. 